



농업박람회 개최

<영 국>

—1975년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영국이 전통적으로 실시하는 농업박람회 (Royal Agriculture Show)가 오는 1975년 6월30일부터 7월3일까지 영국 버밍햄 (Birmingham)에서 열린다. 지난 5월 8일 주한 영국대사관이 양계협회에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이 전시회는 영국에서 실시되는 가장 큰 박람회이며 모든 가축, 농업기계 및 설비, 화학실험기구, 수확된 농작물, 농산물등 농업분야의 모든 부분이 전시될 것이라고 한다. 매년 연례적행사로 실시되는 이 전시회는 1974년도에는 186,220명이 참석, 총 101개국에서 외국방문객만도 3,794명에 이르고 있는데 매년 그 규모를 확대, 전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농업박람회는 외국방문객을 위해서 행사가 실시되는 첫날 입장료만 내게되면 그후 모든 행사는 무료로

참가하는 특전을 베풀고 있다. 이번 농업박람회장의 총면적은 612에이커에 이르는 방대한 면적에 총 8개의 전시장으로 나누어 전시될 예정인데, 제 1전시장은 가축품명, 각 곡물의 전시, 화학약품, 관개(灌漑)시설, 제 2전시장은 가족농업 (Family attraction) 제 3전시장은 국립전시장 제 4전시장은 외국박문객 수용관, 제 5전시장은 각종 기계류 전시장 제 6전시장은 각종 소(牛) 판매소, 제 7전시장은 국제식품전시장 제 8전시장은 농업건물전시센터로 나누어 전시될 예정이다. 참가 문의는 주한 영국대사관 또는 영국의 국제관계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주소는 아래와 같다.

International Relations Officer,
Royal Agricultural Society of England
National Agricultural Centre, Stoneleigh,
Kenilworth, Warwickshire, England,

계란수출 감소의 대응책으로 생산조절

<호 주>

오스트라리아의 1974~1975년도의 연간 계란생산량은 1억 9,200만 打로 추정되고 있다. 이 물량은 前年度의 생산량과 거의 비슷한 양이며 그 이전해인 1972~1973년도에는 1억9,900만 打이었고 또 그 前해엔 2억900만 打를 생산했었다. 위와같이 이 나라의 계란생산은 저하하고 있다. 이때 경은 애그보-드가 생산자에 대하여 생산조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취하여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계란의 해외수출이 근년에 와서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임의대로 자유롭게 생산을 증가시키거나 지속할때 양계가 자신의 수입성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

함이다.

계란의 수출은 가공되지 않은 것이 太平洋諸島에 少量수출되며 가장 큰 몫은 가공卵의 對日輸出인데 이것이 大幅 감소되고 있다.

등록양제가에 대한 할당(割當) 방식에 의한 허가제(許可制)가 뉴사우스웨일스(州)에서 채용되고 있으며 이 방식은 다른 州에서도 법령으로 각州의회에서 채택되어 곧 발효될 단계에 있다.

그리하여 금년도는 이러한 양계가 규제에 의한 최초의 해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서 채란계 수수의 보유와 계란생산에 큰 영향을 주게 될것으로 주목겨리가 될 것이다.

부로일러 생산급증

<부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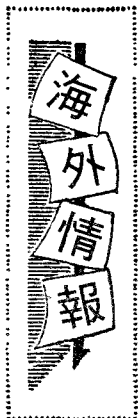
부라질에서도 부로일러의 생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1974년에 입식한 부로일러용 종계의 수는 1973년에 比하여 37%가 늘어났으므로 1975년의 컴머셜 부로일러의 생산수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1973년의 이나라 부로일러肉 생산량은 32만톤이었으며 1972년에 比하면 32%가 증가한 것이었다.

이렇게 증가된 비결으로는 풍부한 사료의 공급과 대도시에서의 수요증가를 들 수 있다.

인디언리버 新種鷄 發賣

<미 국>



지난 4월 인디언리버 인터내셔널社(미국)의 육종연구부장 윌리엄 피셀博士가 밝힌 동사의 육종현황 및 신종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 현재 부로일러 육종회사가 8개社가 있으며 각기 종계를 생산 공급하고 있지만 미국의 부로일러시장은 매우 경쟁이 치열하다. 때문에 각 회사는 보다 효율이 좋은 종계를 생산하기 위한 육종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발목표는 어떻게하면 1파운드의 계육을 보다 싼 가격으로 생산하는 닭을 작출해 내느냐하는 것이다. 그 판단의 기준으로는 파운드당 생산가격이 1/4센트차가 생기면 사육자는 계종을 바꾸기 때문에 육종회사도 민감하다.

이렇게 아주 근소한 생산가격차로 계종이 선정되기 때문에 각육종회사는 최대의 노력을 효율적인 생산능력을 갖는 계종의 생산에 쏟고 있다.

인디언리버社도 강력한 인디언리버의 육종을 감행하기 위하여 콤머셜 단계에서 체중을 년간 90gr 늘리는 것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는 굉장히 많은 경비가 드는데 主導會社인 파이오니어社에서 충분한 연구비를 얻어 몇千, 몇萬의 닭가운데서 아주 강력한 선발을 거쳐, 현재 실용단계의 4라인과 연구단계의 44라인, 모두 48개라인의 계통을 保持하고 있다. 이것은 항상 보다 나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연구단계로 부터

생산단계로 언제든지 전향할 수 있는—즉 매년 부단히 개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언제나 업계에 최고의 닭을 내놓을 수 있다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최근에 개발되어 새로 내놓는 인디언리버 新種鷄는 콤머셜단계에서 1) 체중이 증진 것보다 30~130gr 증체하고 2) 사료효율은 1.97~2.05이며 3) 체형이 좋아졌고 4) 가슴닭에 고기가 많이 붙은 것 등이 호평이다.

데칼브사 와렌 킨바 인수로 명칭변경 판매

<미 국>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 데칼브社는 지난 가을 와-렌 및 킨바-社를 사들였다. 그리하여 급년부더는 와-렌, 킨바-가 데칼브社에 의하여 공급되게 되었고 닭의 명칭도 달라지게 된다. 즉 와-렌·색살링크는 데칼브·부라운, 비-드, 와-렌·안버-링크는 데칼브, 안버-링크, 킨바-K-136은 데칼브-K-163 등으로 호칭될 것이며 여기에서 종래의 데칼브 231과 새품종인 데칼브 엑셀링크가 같이 공급될 것이라 한다.

계란, 계육 파격적 증산계획

<이략>

이략정부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계란과 계육의 엄청난 증산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예산조치를 강구할 것이라 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부로일러는 현재 연간 470만수이던 것을 1980년에는 20배 이상인 9,860만수로 대증산을 하도록하고 또 식란은 연간 1억 2,600만개이던 것을 이 것 역시 파격적인 약 30배 늘려 32억개를 생산하도록 계획을 세

웠다.

부로일러 소비를 장려

<이태리>

이태리의 부로일러와 칠면조도 생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수입량은 많이 감소되었다. 국민 1인당 소비량이 1974년에는 16.6kg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4%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돼지고기보다도 가금육의 소비량이 많아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원인은 이태리 政府가 국민들에게 산육류를 더 먹도록한 여러가지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한 예를 든다면 牛肉의 수입관세의 引上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



자급자족을 위한 대규모 양계장 건설

<쿠웨이트>

쿠웨이트 통상산업성의 담당자가 최근 발표한바에 의하면 대규모의 기계화 양계장의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으로써 계란과 계육의 국내수요를 충족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그 규모는 10만톤의 계육과 6만수의 채란계에 의한 1,200만개의 계란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라 한다. 이 부로일러 양계장과 채란 양계장은 계병예방대책으로 떨어진 별개의 장소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쿠웨이트 농업성의 견해에 따르면 이 나라는 지금 가금육의 50% 이상, 그리고 계란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이번의 계획달성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따른 소요예산은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두가지 문제점으로 고민

<이스라엘>

1969년의 이스라엘의 계란생산은 8억 6,400만개이던 것이 5년 후인 1974년에는 12억개를 생산했으며 계육은 1969년, 61,000톤이 5년후에는 약배인 120,000톤에 달했다. 이밖에 칠면조가 12,000톤이 40,000톤을 초과하여 생산하고 있다. 이와같이 두들어진 양계산물의 증가추세는 수입 牛肉의 부족과 가격의 앙등에 대처하기 위한 자위책으로 취하여진 것이다.

이러한 급성장한 이스라엘의 양계발전에도 두가지 고민거리가 있다. 그 하나는 1969년에 대유행한 뉴캐슬병이 1972~1973년 재발한 것이다. 이 ND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되는 것은 닭의 수중에 사용되고 있는 크레이트(바구니)에 의하여 병원체가 도처로 전파된 일이었다.

그리하여 同국의 가금위원회에서는 방역대책으로 바구니의 소독장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다른 문제는 이 나라에서는 닭의 도살은 개인 농가에서 하며 냉동처리같은 것을 하지않은 상태로 생도체로 거래를 하기때문에 아무런 위생적인 검사제도없이 취급이 되고 있다. 이것은 닭은 개인이 잡아야(드살)한다는 종교적인 관념과 엮인 인습때문에 이 나라에서는 닭의 약 30%가 이러한 전래(傳來)의 방식에 의하여

부로일러 생산 조절 실시

<덴 막>

근년 덴마크에서는 부로일러의 과잉생산으로 글머리를 앓아왔다. 그리하여 작년 5월에 3주간에 걸쳐 부화장에서 부로일러의 입난중지를 했었는데 그 효과는 의심스러웠다.

그리하여 8월과 9월에는 부로일러 종계를 도태하여 이것을 가공처리하도록 보조금도 내어 놓

았다. 이러한 생산조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로일러 처리장(도계장)은 폐쇄해 버리는 것도 생겼다. 그리하여 금년도도 역시 수요에 맞도록 생산을 하지 않으면 작년과 같은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고 일부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가금육의 수출은 작년에 비하

처리되고 있다. 이를 근대화 한 처리를 서두르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다. 다른 한편을 살펴보면 이나라에서는 병아리(중계 포함)와 종난을 수출하고 있으며 가금육도 곧 국내수요가 차면 수출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며, 작년 여름에는 약간의 계육과 계란을 식량이 부족한 키프로스로 수출한 실적을 갖고 있다.

이스라엘 농업성은 국민 1인당 식육소비량을 늘이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는 1인당 50kg(대부분이 가금육임)이지만 1979년에는 65kg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식육전체로 15만톤을 1974년에 공급했지만 79년에는 26만톤을 공급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중 22만톤을 가금육으로 충당하도록 계획이 추진중이다.

여 7.6% 늘어나서 닭은 전망이 보이고 있으나 이것은 E.E.C 회원국인 서독에 대한 수출이 늘었기 때문이나 그러나 영국같은 다른 구라파제국의 수출은 줄었다. 그리고 계란의 수출역시 어둡다. 작년 1월~8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전년동기간에 비하여 수출이 30% 감소되고 있어 채란업계로 부로일러업계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

퀸스랜드주의 양계

<호 주>



북쪽의 나라로써 일정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호주의 선진주(先進州)인 퀸스랜드의 양계는 근래 급속히 발전하여 만 나라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1973년에는 사료비의 앙등, 단백질원의 부족한 해로써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시련을 안겨다준 해로 기억될 것이라고 한다. 호주는 계란산업의 안정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에그 다키팅 보-드를 일찍부터 설립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퀸스랜드에서는 이 조직이 스캔들동안이나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가부업 양계로 시작한 양계가 오늘날에는 이주의 주축 농산물로 신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원인으로는 양계생산 기술의 진보와 양계생산업 구조의 커다란 변화에 따른 것임은 틀림없었지만 양계인 스스로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또 받아들이는 의욕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퀸스랜드 양계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파더로 더 큰 변화이 일 것으로 보여진다. 즉 양계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육규모의 확대가, 구체화될 것이 예측된다. 1960년대 초기에 부로일러 사육이 시작되면서 양계산업은 채란, 치육의 두 부문으로 나뉘었고 더욱 오늘날은 부로일러 생산액이 계란을 능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축육(畜肉)의 생산을 자랑해온 이 나라에서도 牛肉가격의 상승등으로 인하여 비교적 싼 가금육의 수요가 급속히 신장한 것을 먼저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닭의 육종사업을 주로 會社企業的資本에 의하여 추진되어 왔

다. 즉 대규모 부화장이나 처리장을 경영하면서 이것을 배경으로 육종을 해온 것이다.

퀸스랜드의 양계산업은 계란과 부로일러의 생산, 종계, 육상견 문등 각부문에 걸쳐 기업적 형태로 급속히 발전하여 온 것으로 지난날의 양계농가의 그림자를 오늘날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과거 10년간에 통계를 보면 1963년의 채란계(總數)는 155만수, 양계호수가(1천수 이상) 564호이던 것이 10년후인 1973년에는 채란계 162수, 1천수 이상의 양계호수는 208호로 감소되었다. 계란의 수급계획에 따라서 1호당 평균 사양규모는 더욱 확대되어 小戶數 首數擴張의 방향으로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한다.

이 지방에다 채란장의 케이지 수용이 많이 보급되어 있다. 85% 이상이 케이지 사육이다. 이전에는 單籠케이지가 대부분에 있었지만 최근에는 38×45cm의 케이지에 3수를 넣는 것이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破損率, 칸나발리즘이 많이 발생하고 또 파리가 많이 생기므로 이의 예방대책에 매우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것

飼케이지 유행의 배경으로는 계사시설의 절감, 群飼에 걸칠한 소형계란계의 개발이 실질 효과를 보았다는 것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요즘은 수용밀도를 높히기 위하여 바다리식 3단 군사 케이지가 영국으로 부터 도입되어 시험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퀸스랜드의 풍토조건하에서는 경제적으로 맞듯이 좋다는 생각은 없었다. 각종 시험결과 1단의 케이지가 양호하며 실재적으로 많이 보급되어 있다. 계사는 케이지 밑의 계분을 트러터로 계분(除糞)할 수 있도록 고상식(高床式)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이 지방 역시 노동임금이 높아져서 고용난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그리하여 자동급이나 자동집진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무창(Windowless) 계사는 아직 요원한데 경제적으로 맞지 않음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

단백사료 대책 부심

<호 주>

육골분(Meat-bone meal)은 호주에서는 지금까지 중부하여 싼 값으로 구할 수 있는 단백질 사료였으나 최근 세계적인 단백질 자원부족으로 육골분도 가격이 상승되고 있다. 이 현상은 일시적인지 모르지만 대체원료(代替原料)를 다양하게 개발하는 준비

를 해야하며, 사료절약과 관련하여 채란계 사료의 영양분과잉, 특히 에너지 과잉급여에 따른 지방제 등에 대한 반성이 일고 있다.

☆ ☆